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3년 9월 12일(화) 총 2매	
담당 부서	문화정책과	담당자	• 문화정책팀장 최재필 ☎440-4011 • 담당자 강선미 ☎440-401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만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담은 축제와 상징물을 만들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2일 인천아트플랫폼에서 문화 및 관광분야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 80여 명과 함께 「세계 시민들이 ‘인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 상징물을 만들자」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오직, 인천’만의 문화가치를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며, 인천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축제와 상징물 개발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 토론은 인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지역, 축제, 상징물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인천만의 글로벌 문화가치 창출과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고,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경영 등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인천만의 상징과 축제를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도자기공방 민’ 조은경 대표는 “최근 향미단길을 조성하여 쇠락해 가는 거리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처럼 신구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태민 인천대학교수는 “인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축제와 상징물을 개발하되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융합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기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한 이번 토론회는 문화관광분야 토론회의 주제와 결맞게 예술을 일상에서 즐기고 있는 봉사 동아리 ‘씨밀레’의 오토하프 공연으로 시작했다. 토론에 참석한 시민들은 토론장 옆에 마련된 사진동아리의 사진전시를 관람하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시민은 “토론에 참여한 시민 모두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자유스러운 토론을 통해 시정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즐겁게 토론회에 임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문화 가치가 곧 미래 도시의 가치가 될것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신 의견들이 인천이 세계적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오직 시민, 오직 인천, 오직 미래만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발로 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참고]

- 토론회 개요 및 진행순서
- 토론패널 및 주요내용 소개